

유기농업 접목 친환경 임업 가치 실천 앞장

전남도 '10월의 임업인' 방선호 마장지 농원 대표

광양 다압면서 40년간 유기농 밤 재배
화학농약 대신 목초액 방제 기술 확립
지역 농가 전파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전남도는 10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광양시 다압면에서 40년간 유기농 밤을 재배해 온 방선호(71) 마장지 농원 대표를 선정했다. 방선호 대표는 1985년부터 유기농 밤을 재배

하며 친환경 임업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해 온 선도적 임업인이다. 농약 없는 건강한 먹거리를 고민하던 중 자연 농업학교에서 유기농업을 접한 방 대표는 병해충을 자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재배기술을 밤나무 재배에 접목했다. 그 결과 밤·고사리 등 유기농 임산물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임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방 대표는 목초액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

제 개발을 통해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화학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실현했다. 이 기술을 지역 농가에 전파하고 유기농 인증 유지법 등을 교육해 마을 전체를 친환경 마을로 탈바꿈시켰다. 다압면은 2009년 전남도 제1호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됐다.

방 대표는 전남선도임업인협의회 등 임업인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임업신기술 보급과 임업인 소득향상 및 역량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간의 공로로 2011년 전남도 과수분야 유기농 명인(8호) 선정, 2021년 대표산림과수 선발대회 밤 부문 최우수상 등 다양한 수상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방선호 대표는 "유기농을 실천하는 게 힘든

과정이지만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친환경 유기농 임산물 생산을 실천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유기농 임산물 생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밤은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미용과 피로해소, 감기예방에 효능이 높다. 밤의 속껍질을 이르는 순우리말인 '보니'에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탄닌' 성분이 풍부해 묽은 변이나 설사라고 생각할 때 속 껍질을 끊어 마시면 천연 지사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보니밤', '밤 양갱', '밤 티라미수', '밤라떼' 등 다양한 가공·요리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양시원기자



전남도 '10월의 임업인' 방선호 마장지 농원 대표

농협광주본부, 지역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북구 블루베리 농장 찾아 영농지원 활동
교정기관·지역사회 협력으로 상생 실천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교정기관과 손을 맞잡고 현장 지원에 나섰다. 광주지역본부는 22일 "최근 광주 북구 장동 일대 블루베리 농장에서 광주교도소 소속 '보라미봉사단'과 함께 영농인력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은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지역사회와 교정기관이 협력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는 광주교도소 재소자와 교도관, 교정위원, 농협광주본부 및 광주농협 직원 등 2

0여명이 참여해 폐작물 수거, 잡초 제거, 주변 환경 정비 등 다양한 농작업을 함께하며 구슬땀

을 흘렸다. 농협광주본부는 이번 활동을 통해 농촌의 실질적인 일손 부족 해소뿐 아니라,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의지를 고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으며 지역 공동체의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이현호 농협광주지역본부장은 "농협은 지역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보라미봉사단과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라미봉사단'은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운영되는 자발적 봉사단체로, 모범수 및 가식방 예정 수용자, 교도관, 교정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정화, 농촌 일손돕기,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안태호기자



고흥에 감귤 신품종 보급

전남농기원, 맞춤형 재배 기술 개발
미래향·윈터프린스로 소득 향상 기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2일 "고흥군에 국내 육성 감귤 신품종인 '미래향'(사진)과 '윈터프린스'를 0.5ha 이상 보급해 지역 맞춤형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전남 감귤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와 협력해 추진되며 '감귤 우량계통 지역적응평가'와 '감귤 신품종 전시포 조성' 2개 시범으로 나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수행된다.

국내에서 육성된 감귤 신품종 '미래향'은 껍질이 얇고 잘 벗겨지며 향기가 우수해 소비자 기호도가 높다. 또한 12월 수확이 가능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윈터프린스'는 당도가 높고 산미의 조화가 뛰어나며 12월 수확이 가능해 기존 만감류에 비해 출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는 고흥지역에 신품종을 우선 식재해 전남 지역 기후와 재배환경에 적합한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전시포 조성을 통해 농가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 관내 농업인 농기계 사고 예방 총력

담양농협과 캠페인 전개
차량용 소화기 등 안전구호물품 전달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은 22일 "최근 담양농협과 함께 담양농협 용면지점에서 '2025년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김병진 담양농협 조합장, 이광재 담양군지부장, 문익주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장, 이용철 청수작목회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농업인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실제 사례 중심의 농기계 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담양군 관내 농업인에게 안전삼각대와 차량용 소화기 등 안전용품 전달



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2012년부터 정기적으로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2017년부터는 농촌진흥청과 체결한 '농업

으로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2017년부터는 농촌진흥청과 체결한 '농업

인 소득 향상과 농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병진 조합장은 "이번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으로 농업인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선제적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조합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확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문익주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늘고 있는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에서도 농가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농작업 중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하는 농기계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안태호기자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